



[마켓]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내 상장사에도 공시대리인제 허용” 08



Life

[유통] 노령견·다견가구 펫팜족에 ‘개모차’ 인기 11



연령대별 모바일 커뮤니티로 다양한 사회공헌

베이비스토리... 키즈곰곰... 아지냥이... 인생락서

<출산·육아>

<유아교육>

<반려동물>

<중장년층 소통공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② 삼성카드

카드사의 사회공헌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회사·직원이 힘을 모어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삼성카드는 ‘열린나눔’을 통해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열린나눔’은 소외 이웃을 위해 고객이 직접 나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제안, 포인트와 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열린기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을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봉사로 구성돼 있다.

이 나눔을 통해 삼성카드는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과 차별 속에서 장애인, 외로움을 홀로 견디는 어르신부터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까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제공한다.

◆ 사회공헌도 모바일·온라인으로

삼성카드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CSR)을 한 차원 높여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펼치는 공유가치 창출(CSV)로 진화시켰다. 공유가치창출(CSV)이란 사회현안에 대해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 이용자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14년 영랍(20대 소통)을 시작으로 베이비스토리(출산 및 육아), 키즈곰곰(유아교육), 아지냥이(반려동물), 인생락서(중장년층 소통공간) 등 5개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했다.

삼성카드는 베이비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이 활동할 때 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미혼모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키즈곰곰을 통해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창의교육 지원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5060세대를 공략해 출시한 ‘인생락서’는 중장년층이 자서전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글쓰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반려동물 커뮤니티 ‘아지냥이’는 유기동물 후원사업은 물론, 전문가 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기준 회원 수는 베이비스토리 32만명, 키즈곰곰 26만명, 아지냥이 28만명, 인생락서 12만명으로 집계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각박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힐링을 주는 ‘디지털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지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적 공유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꿈 응원...미래 인재 지원 ‘골든벨’

삼성카드는 지난 2001년부터 KBS 도전골든벨을 후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골든벨 스튜디오, ‘골든벨 스쿨’, ‘골든벨 스테이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골든벨 스테이지는 젊은 예술가에게



지난 2월 골든벨 장학생 중 올해 대학 입학할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고객이 아이디어 제안해 나눔 실천 회사·직원·고객 힘 모아 ‘열린봉사’

20대·유아교육·반려동물 등 5가지 모바일 커뮤니티 제공 다양한 사회공헌의 장 만들어

17년간 ‘도전 골든벨’ 후원해 장학생들에 대학입학금 전달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는 차별화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나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실력에 비해 기회가 부족한 젊은 예술가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특별가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해 공연 관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골든벨 스쿨은 일상 속의 숫자와 빅데이터 사례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중학생 청소년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을 일상생활에 접목해 다양한 게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골든벨 장학생중 올해 대학입학을 하는 학생 7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금을 전달하고, 지난 3월에는 골든벨 스튜디오 멘토와 멘티 160명, 골든벨 스쿨 대학생 봉사자 50명이 참여한 골든벨 장학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 소외계층서 유기동물까지

삼성카드는 굶주림과 질병, 사고의 위험



- ① 지난 3월 삼성금융캠퍼스 비전홀에서 골든벨 장학사업 발대식이 진행됐다.
- ② 삼성카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기부로 치료한 유기동물의 근황을 올려 공유하고 있다.
- ③ 지난 3월 삼성카드는 서울지방보훈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④ 삼성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연2회 연탄배달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에 노출된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기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거리로 내몰리는 유기동물을 위해 열린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2월 열린기부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여섯 마리 유기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동물을 치료한 사진과 근황 등 기부금 이용과정을 모두 올려 공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유기동물을 위한 열린기부의 목표액은 300만원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나눔은 유기견 검진 및 치료비와 사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16일 기준으로 고객기부액은 약 200만원, 삼성카드 기부액은 약 95만원 가량이 모금됐다.

삼성카드관계자는 “열린기부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유기동물을 위한 기부활동”이라며 “향후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선진국 제도 소개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거시적 측면에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